테마칼럼 | 이성세계 | 정치프리즘 | 정세의 눈 | 문화 향기

박물관 설립 기업이 나서야

지 건 길
〈동아대학교 교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 홍보는 감각적 광고보다 비록 효과의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효과의 지속성, 나아가서는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 값비싼 투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박물관의 역사는 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일본이 조선왕조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한참 식민지 지배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던 때였다. 1907년 왕궁을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여기에 인접해 있는 창경궁 안에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박물관 건립계획도 아울러 수립되었다. 2년 뒤인 1909년에는 창경궁의 정전이었던 명정전(明政殿)을 개조한 ‘제실(帝室)박물관’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한일합방 직전에 만들어진 이 박물관은 우리의 주체적 의지라기보다는 일제가 우리 왕실의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 궁궐 안에 박물관을 설립한 오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의 구심점으로

다시 ‘이왕가(李王家)박물관’으로 격하되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15년에는 ‘총독부(總督府)박물관’이 발족하여 얼마 뒤에는 경주와 부여, 공주 등 고도(古都)에도 지방의 분관(分館)이 개설되었다. 광복과 함께 일제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 받아 미군정(美軍政)에 의해 서울의 국립박물관 본관과 세 곳의 분관이 개관하였는데 우리의 박물관도 우리 근대사만큼이나 큰 아픔을 안고 탄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이야 어떻든 우리 박물관도 이젠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몇 차례의 이전을 거쳐 지난해 연말에는 서울 용산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명소로 문을 열어 온 국민들에게 문화적 자존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 동안 지방박물관도 비약을 거듭하여 과거 고도 중심에서 벗어나 1978년 개관한 이곳 광주박물관을 시작으로 하여 1도(道) 1관 체제가 정착되면서 지금은 모두 11개의 국립박물관이 각 지방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박물관문화를 선도해 온 국립박물관의 발전과 함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공립박물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사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의 눈부신 변화도 짧은 기간에 드높여준 우리의 문화적 위상의 산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박물관협회에 등록된 박물관의 수만도 350여 군데에 이르지만 미등록된 박물관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듯 단기간에 이뤄진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박물관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은 많은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나는 한 가지만 제언하고 싶다. 바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업의 참여이다. 일부 극소수의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성격에 맞는 소장품을 모아 전시함으로서 기업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에게 박물관 운영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랜 집념으로 상당한 분량의 소장품을 모았다 쳐도 이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지어 운영하게 되면 시설과 설비, 관리와 인력에 들어가는 막대한 경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달리 운영비를 염출할만한 수입원이 있기 전에는 박물관 운영이란 자칫 꿈으로 끝나기 십상인 것이다.

기업홍보의 장 활용가능

그래서 지금까지 제법 알찬 내용으로 문을 열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타인에게 넘어가면서 애써 모은 귀중한 자산들이 흐지부지 흩어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개인과는 달리 그것이 기업홍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정액의 경상비 지출이 가능한 것이다. 박물관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 홍보는 매스컴 등 시청각을 통한 감각적 광고보다 비록 효과의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효과의 지속성, 나아가서는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 값비싼 투자만은 아닐 것이다.

‘문화와 기업’, 우리가 21세기에 지향해 나가야할 새로운 기업의 이미지가 되길 바란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기아차 노조 한달도 안돼 또 파업이라니

기아차 광주공장의 뉴카렌스 생산라인 가동이 조합원들의 조업거부로 3일째 전면중단됐다고 한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문제로 23일간 진행된 부분파업을 지난 1일 끝낸 지 한 달도 채 안돼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파업중독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되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고도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

기아차 광주공장 뉴카렌스 생산라인 노조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추가 인력보강을 요구하며 일부 잔업을 거부해 오다 26일 오후부터 갑자기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라인 가동중 NECK(작업도중 과부하)이 발생하면 인력을 보강키로 한 약속을 회사 측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

노조원들의 이런 파업명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인력 충원은 노조와 회사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결코 파업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더욱이 회사 측이 노조원의 요구에 따라 NECK 현상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지 않은가.

기아차 노조는 지역 경제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지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내수부진과 고유가, 환율하락에 시달리는 기업상황은 더 절박하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나만 편하고 배 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파업을 밥 먹듯 해서야 되겠는가.

요구사항이 아무리 일리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파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강성투쟁 방식은 기업과 경제를 망치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기아차 노조는 기업과 지역 경제를 아예 결딴낼 요량이 아니라면 자신을 위해서도 당장 파업을 끝내라.

지난번 부분파업으로 회사에 7천400여 억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어떻게 임단협 합의서에 펜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업환경개선대책 지방 활성화 계기로

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규제완화와 더불어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하다. 하지만 포장만 기업환경개선 대책일 뿐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경제규모 세계 12위권에 걸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환경 경쟁력은 175개국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 미국(3위), 일본(11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1위), 홍콩(5위) 등 우리의 경쟁국이나 태국(18위)에도 밀리고 있다. 특히 창업환경은 116위, 고용환경은 110위로 개도국 수준이다.

각종 규제도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총량이 2000년 925건에서 현재 1천56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규제 폐지에는 소극적인 반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선 기업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좋을 리 없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환경 개선은 비수도권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울의 공장용지 가격이 파리의 9배, 암스테르담의 3배를 넘는 현실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수도권 비대화는 각 부문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만 늘어나게 된다.

이번 종합대책이 비수도권과 중소기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살려내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의 슬로건인 국가 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고 비수도권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일부의 우려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환경개선 대책으로 포장했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無等鼓

無蛙不成

물도 없고 자갈로 뒤덮인 척박한 지역이 있었다. 원래 까마귀들의 땅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묵힌, 버려진 마을이었다. 우연히 그곳을 발견한 꾀꼬리들은 밤낮없이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았다. 멀리 강에서 물길을 끌어와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다. 그렇게 터를 잡은 지 10여 년, 황무지는 옥토로 변했고 가을걷이가 풍성해졌다.

훗날 소식을 전해들은 까마귀들이 되돌아왔다. 까마귀떼는 “내 땅”이라며 곡식과 땅을 빼앗았다. 힘 약한 꾀꼬리는 새들의 왕(王)인 황새에게 잘잘못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황새는 노래 시합을 열어 땅 소유자를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시합 전날 밤, 무리 중 가장 늙은 까마귀가 황새를 찾아갔다. 눈이 멀고 기력이 약해진 황새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를 한 보따리 건네주면서 운을 뗐다.

“꾀꼬리는 부지런해서 어디든지 가서도 잘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성이 게으르고 일을 못해 쫓겨나면 굶어 죽습니다. 왕께서는 불쌍한 처지를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경연이 끝났다. 황새의 심사평이 뒤를 이었다.

“꾀꼬리 노래는 천상(天上)의 소리처럼 감미롭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박력이 부족했다…”

결국, 꾀꼬리는 애써 일군 땅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개구리가 없어서 이루지 못한다’는 ‘무와불성’(無蛙不成)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돈과 ‘빽’이 없으면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구전(口傳)에 따르면 조선 숙종(肅宗·1661~1720) 임금은 암행(暗行) 중 산골에 묻혀있던 젊은 선비로부터 이 말을 듣고, 붕당정치(朋黨政治)의 폐해를 혁파(革罷)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주고받기가 한창이다. 민원과 함께 개구리를 들고 온 사람들을,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의료 칼럼

조 태 영

성형에도 ‘타이밍’이 있다

TV·잡지 등 대중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에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다. TV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당당히 밝히는 연예인이 늘어난 것처럼 성형을 가볍게 여기는 청소년도 많아졌다. ‘번거롭고 귀찮은 화장’쯤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 자신의 외모가 친구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 부모님의 허락을 원한다. 한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70% 이상이 성형수술을 희망하거나 수술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의 성형수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눈 수술의 경우에는 조금 일찍 시행해도 되지만, 코 성형이나 얼굴 뼈를 조작하는 안면윤곽수술의 경우 완전히 골격의 성장이 끝난 16~18세 이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 전에 수술하면 성장에 관계된 부위에 손상이 가서 안면의 비대칭이나 성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너무 어린 시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신이 분산되어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병원을 찾는 어린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한다면 성장이 완전히 끝난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곤 했다.

얼마 전 머리가 희끗희끗해 보이는 50대 초반의 신사분이 병원에 찾아왔다. 그의 고민은 짧아 보이는 코끝. 정면에서 보아도 콧구멍이 많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했다. 수술 후 치료가 끝난 마지막 날, 그는 환하게 웃으며 “학창시절, 그리고 군대시절 늘 코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고, 이런 일들이 평생 한(恨)이 됐는데 진작 수술을 받을 것을 잘못했다”며 즐거워 했다. 환자의 신체적 콤플렉스가 해결되는 순간, 나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자신의 외모에서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에 성형수술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바꾸어 가려는 일부 환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이런 무리한 시도는 계속 성형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정신적인 기형을 초래할 뿐이다.

또 적절한 수술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해 수술을 받으면 원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오히려 처음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성형이라는 것을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보완하고,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여 우리의 삶에 살짝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양념 정도로 생각하면 훨씬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메디필 성형외과 원장〉

기고

한 우 석

주거만족도에 대한 단상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리서치 월드’에 의뢰한 우리국민들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기존 시가지보다는 계획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도시의 주거의 질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기반)가 계획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최근 ‘웰빙’이 화두가 되면서 주거의 편리성은 물론, 쾌적성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돼야만 입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광주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수완지구의 공동주택 동시분양이 마무리됐다. 사실 수완지구는 통합모델하우스 오픈 전만하더라도 주택건설시행사 관계자들 조차 난색을 표할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나 지방건설경기침체 등의 분위기 속에서 광주 최초로 11개 건설업체의 동시분양이 시도됐기 때문이다.

또한 건교부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주택보급율이 2005년말 현재 103%로 주택의 절대부족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7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일시에 공급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도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가 당초 예상했던 분양율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거둔 것은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기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 주택건설시행사들과 토지공사의 노력도 이번 동시분양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는데 한 몫을 했다고 자평해 본다. 시행사들은 이번 분양에서 독창적인 주거설계와 함께 친환경자재도입으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우려를 털어냈으며, 토공도 계획단계부터 차별화된 인간중심의 공간조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가 분양성과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수완지구는 입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펼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우선 전체 면적 140만평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7%를 녹지공간, 문화시설공간, 도로 등의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함으로써 주거의 질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간선가로의 각종 시설물의 경우 전문가그룹에서 디자인한 독특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디자인시티’로서의 명성도 함께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 최초로 시도되는 집단에너지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쇼핑 등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등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수완지구를 철새들이 날아들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인간중심의 웰빙도시로 조성하여 빛고을 광주의 ‘명품도시’에 거주하는 즐거움을 입주민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수완사업단장〉

도로 중앙 분리봉 지속관리 중요하다

도로 중앙선에 설치하는 중앙 분리봉이 큰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도 설치되는 등 설치 지역이 늘고 있다.

중앙 분리봉은 주로 불법 유턴지역이나 급 커브길,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 등 사고다발 지역에 설치되는데, 현재 중앙 분리봉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파손된다.

아예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중앙 분리봉을 무시한 채 분리봉 위로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들도 많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에 부서진 채 널부러져 있는 것들도 많다. 그렇다고 섣불리 부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기도 곤란하다. 자칫 이 분리봉으로 인해 오히려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먼지가 쌓여 야광 식별띠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분리봉도 흔하다.

설치만 해놓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중앙 분리봉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소비자 우롱하는 대부업체 횡포 가만 둘텐가

지인이 목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싶어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간 파산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신청에 꼭 필요한 부채증명서(대출잔액 확인서)를 떼려고 하니 대부업체인 캐피탈 회사에서 이자부터 갚으라며 거부했다.

몇차례나 전화를 해도 “본사에서만 떼어준다”거나 “자택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니 기다려보라”는 등 시간 끌기로 나오더라는 것이다.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파산 신청 서류를 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대부업체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만원을 빌려 법무사에게 의뢰해 서류를 꾸미고 내용증명 보낸 뒤에야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파산 신청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막는다고 금융 기관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같은 일부 대부업체들의 횡포는 사라지도록 해줘야 한다.

▲성열봉·장성군 장성읍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